

V15 단독선두…긱 나이트!

LG전 7이닝 2실점…넥센 '김성갑호' 연승 출발



SK가 롯데를 4연패의 늪에 빠트리며 25일 만에 2위로 도약했다. 4위 두산은 선발 노경은의 8이닝 무실점 호투에 힘입어 3위 롯데를 1경기차로 추격했다. 넥센 나이트는 15승째(3패)를 수확해 다승 단독선두로 치고 나갔다.

●SK 7-0 롯데(사직·승 윤희상·패 송승준)

SK 이만수 감독은 1-0으로 앞선 6회말 1사 만루 위기서 선발 윤희상을 박희수로 교체하는 강수를 뒀다. 박희수는 2타자를 밀타처리하며 위기를 넘겼다. SK는 7회초 롯데 1루수 박종윤의 실책으로 2점을 추가한 뒤 9회초 최정의 3점홈런(시즌 24호)으로 승부에 쐬기를 박았다. 윤희상은 9승째(8패).

●넥센 8-2 LG(잠실·승 나이트·패 이승우)

넥센 박병호는 4-2로 앞선 7회 우중월3점홈런(시즌 29호)을 썼다. 9회에는 희생플라이로 시즌 97타점째를 올렸다. 박병호는 30홈런-100타점에 1홈런, 4타점만을 남겼다. 에이스 나이트도 7이닝 2실점으로 제 몫을 다했다.

●두산 6-0 KIA(광주·승 노경은·패 윤석민)

두산은 1회 김현수의 2타점 2루타로 산뜻하게 출발한 뒤 3회 오재일의 적시타로 추가점을 뽑았다. 노경은은 8이닝 무실점으로 시즌 10승(6패) 고지에 올랐다. 니퍼트(11승), 이용찬(10승)에 이은 두산의 3번째 10승투수. KIA 에이스 윤석민은 8이닝 3실점으로 7패째(8승)를 기록했다.

●한화 8-6 삼성(대전·승 박정진·세 안승민·패 차우찬)

선두와 꼴찌의 싸움이었지만 역전에 재역전을 거듭하는 난전이었다. 한화는 5-6으로 뒤진 6회말 고동진의 우월2점홈런(시즌 3호)으로 승기를 잡았다. 한화 마무리 안승민은 0.2이닝 무실점으로 시즌 15세이브를 기록했다. 삼성은 매직넘버 10을 유지했다.

전영희 기자 setupman@donga.com 트위터 @setupman11

데일리 포커스



19일 잠실 넥센전에 데뷔 후 처음 등판한 LG 신인투수 신동훈이 힘차게 볼을 던지고 있다. 신동훈은 13일 잠실 SK전 9회말 상대의 투수기용에 불만을 품은 김기태 감독의 지시로 마운드가 아닌 타석에서 데뷔전을 치렀다.

잠실 | 김종원 기자 won@donga.com 트위터 @beanjiun

LG 신동훈 “나는 투수다”

프로 첫 출전이 9회말 대타 논란 속없이
넥센전 마운드 첫선…1이닝 2K 무실점

넥센-LG전이 열린 19일 잠실구장. LG가 2-7로 뒤진 8회초 갑작스럽게 뜨거운 함성이 터져나왔다. 승부가 이미 기운 터라 의아스러운 상황. 그러나 그 이유는 곧 마운드 위에서 확인됐다. LG의 고졸 신인투수 신동훈(19)이 서 있었다. LG팬뿐 아니라 넥센팬들도 박수로 '사연 있는' 그의 등판을 축하했다.

신동훈은 이날 프로 데뷔 이후 1군 경기에는 처음으로 등판했다. 그러나 프로 데뷔전이 아니었다. 그는 투수가 아니라 타자로 이미 데뷔전을 치렀다. 12일 잠실 SK전에서 0-3으로 뒤진 9회말 2사 2루서 대타로 타석에 섰다. SK가 3-0으로 앞선 상황에서 연이어 투수를 교체하자 이에 항의하는 뜻으로 LG 김기태 감독이 신동훈을 내보낸 것이다. 그는 배팅장갑도 끼지 않은 채 서서 스탠딩 삼진을 당했다. 감독의 뜻에 따라 출전하긴 했지만, 그에게는 상처뿐인 프로 데뷔전이 됐다.

이런 사연을 잘 알고 있는 양측 팬들은 신동훈이 볼을 던질 때마다 힘찬 박수와 함성을 보냈다. 팬들의 응원을 등에 업은 신동훈은 첫 타자를 삼진으로 잡아내며 산뜻하게 출발했다. 2번째 타자도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투수로서의 기량을 한껏 뽐냈다. 유격수 오지환의 호수비로 3자범퇴를 기록하며 이닝을 마무리한 신동훈. LG 선수 전원은 먹아웃 앞에서 임무를 완수한 후배를 격하게(?) 축하해줬다.

1주일 전 사건은 프로세계에 막 발을 내디딘 신인이 이겨내기에는 다소 버거울 수도 있었다. 그러나 신동훈은 마음고생을 훌훌 털어버리고 마운드에서 제 역할을 다했다. 비로소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잠실 |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트위터 @gtyong11

“KS 파트너 골라잡기? 쉬운 팀이 없다”

베이스볼 브레이크 | 삼성 류중일 감독이 보는 2~4위 팀컬러

롯데 이대호 없지만 마운드 더 강해져
SK 이기는 법을 아는데…김광현 키맨
두산 올 상대전적 12승6패 '사자 길러'

대해 하나씩 짚어나갔다.

●색깔은 달라졌지만 장단점이 있다!

류중일 감독은 롯데에 대해 “작년까지 타격의 팀이었는데 이대호가 빠져나갔다. 대신 기동력이 살아났다”고 평가했다. 롯데는 지난해 시즌 133경기를 소화하면서 112도루를 기록했는데, 올 시즌 이미 그만큼 도루를 했다. 롯데 마운드를 높고는 “장원준이 없지만 유민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잘하든 못하든 정대현 이승호 FA(프리 에이전트) 2명이 가세했고, 최대성 진명호가 불펜에 가세해 마운드가 확실히 좋아졌다”며 경계심을 나타냈다.

SK에 대해선 “시즌 초반 김광현이 아파서 나오지 않았지만 계속 좋아지고 있다”며 “가을동화”라고 하나? 조동화도 복귀



했다. 팀컬러는 큰 차이가 없다. SK는 야구를 할 줄 아는 선수들이 많다. 결국 김광현이 키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두산에 관해선 “우리가 워낙 많이 쳐서 그런지 까다로운 팀이다”고 짧게 말했다. 삼성은 올해 두산에 6승12패로 절대열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니퍼트와 이용찬에게는 4승씩을 헌납할 정도로 약점을 보였다.

●파트너 골라잡기? 순리대로 간다!

한국시리즈 직행을 확정하더라도 파트너에 대해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1위 확정 이후 잔여경기를 통해서 까다로운 팀에는 전력으로 싸우고, 상대적으로 자신

감 있는 팀에는 느슨하게 선수를 기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류중일 감독은 “장단점이 다 있어 쉬운 팀은 하나도 없다. 파트너 골라잡기? 그런 건 할 수가 없다”며 “남은 경기도 순리대로 풀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괜히 오해를 살까 겁난다”고도 했다. 삼성은 잔여경기 일정에서 비로 인해 10월 3일 이후로 4경기가 밀려 있는데, KIA와의 2경기 외에 두산 SK와 1경기씩을 남겨두고 있다. 류 감독은 “그때까지 2위팀이 확정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1위 확정 이후에 특정팀만 밀어줬다고 할까봐 은근히 신경 쓰인다. 시즌 최종전까지 선발 로테이션대로 넣어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며 “저주기? 프로야구에서 저주기가 어디 있냐?”며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대전 | 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 트위터 @keystonelee

런 다운

정근우 세번째 황금장갑 소망
“이번엔 제대로 소감 말할 것”

SK 2루수 정근우(30)는 시련의 2012년을 보내고 있다. 2005년 데뷔 첫해를 제외하곤 이렇게 타격 성적이 떨어진 해가 없었다. ‘3할은 기본’이라던 그가 올 시즌에는 2할 6푼대에 머물고 있다. 19일 사직 롯데전을 앞두고 그는 “이제 (타율이) 못 쳐도 안 떨어지고, 쳐도 안 올라간다”며 웃었다.

개인성적에 미련을 두지 않는 만큼 수비에 대한 애착은 더 커졌다. “수비상이라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수비능력만으로 수상의 영광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골든글러브를 받고 싶은 의지가 엿보인다.

정근우는 2차례 ‘황금장갑’을 끼었다. 그런데 2006년 첫 수상 때는 너무 떨려서 수상 소감을 제대로 밝히지도 못했다. “얼마나 더 들거렸으면 소감을 얘기하다가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고 말했다. 똑같은 수상소감을 두 번 말한 건 내가 사상 처음일 것”이라고 했다. 어느 정도 인터뷰에 단련된 2009년에는 훈련소에 있어서 아버지가 대리로 수상했다. “상을 받았는지도 몰랐다. 훈련소 조교가 알려줘 알았다”고 돌이켰다. 이러다보니 제대로 소감을 말할 수 있는 3번째 기회가 더 간절한 듯하다.

그래도 젊은 정근우는 이호준보다 행복할지 모른다. 때마침 정근우 옆에 있던 이호준. 서른여섯 나이에 재기에 성공한 그는 “이승엽(삼성)이 1루수가 아니라 지명타자로 올 것 같다. 나하고 홍성흔(롯데)은 마음 비워야 할 것 같다”며 푸념했다. 사직 |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트위터 @matsr121

■빅마우스

●**집사람이 한강 가지 말라네요.** (넥센 김성갑 감독대행. 감독대행을 수락한 뒤 한강 고수 부지에서 2시간 이상 고민했던 사연을 아내가 알게 됐다며)

●**도루하면 무릎으로 볼 날아갑니다.** (LG 김태균. 20홈런-20도루 클럽 가입에 도루 4개만을 남겨둔 넥센 박병호에게 농담조로)

●**야간통행금지 아이가?** (삼성 류중일 감독. ‘야구대통령’의 줄임말로 ‘야동’이라는 별명이 지난해부터 붙은 데 대해 속스러워하며)

●**상동 들어갔으니까.** (롯데 양승호 감독. 고원준의 최근 호투 비결 가운데는 경남 김해 상동에 위치한 롯데의 2군 숙소로 주거를 옮긴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숨은 기록 찾기

●LG 신동훈 데뷔 후 투수로 첫 출장

●LG 이진영 14연속경기만타

●넥센 나이트 6연승

●두산 역대 3번째 팀 통산 4만8000루타

●롯데 송승준 역대 12번째 5년 연속 세 자릿수 타점신

●SK 윤희상 데뷔 후 롯데전 첫 승 및 시즌 3번째 구단 상대 승리



SK 박정권(왼쪽)이 19일 사직 롯데전 4회초 1사사 상대 실책으로 출루해 2루 도루까지 나섰으나 실패한 뒤 아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직 | 박희용 기자 inphoto@donga.com 트위터 @seven7sola

넥센 ‘핵잠’ 김병현, 50일만에 선발 출격

오늘 롯데전 등판…선발투수 제 시험대

‘핵잠수함’ 김병현(33·넥센)이 다시 선발 시험대에 오른다.

넥센 김성갑 감독대행은 19일 잠실 LG전에 앞서 “선발 로테이션에서 김영민이 부상, 장효훈이 부진으로 빠지게 됐다”며 “20일 목동 롯데전에 김병현을 선발투수로 기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잔여경기를 다 마칠 때까지 김병현에게 선발 역할을 맡길 생각이다. 다른 투수들에 비해 경험

이 앞서는 김병현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올 시즌 국내로 돌아온 김병현은 일찌감치 선발 테스트를 받았다. 4월까지 2군에서 선발수업을 받은 그는 5월 1군에 합류했다. 국내 1군 데뷔무대를 구원 등판으로 치른 뒤 선발 로테이션에 정식으로 합류했다. 직구의 위력은 여전했지만, 회복력과 제구력에 문제를 드러냈다. 특히 좌타자 상대에 어려움을 겪으며 들쭉날쭉한 피칭을 했다. 8월초까지 9경기에 선발로 등판해 2승5패,

방어율 6.64를 기록한 뒤 결국 2군으로 내려갔으며 8월 중순 복귀 후로는 불펜요원으로 보직을 바꿨다.

김 대행은 “아직 김병현을 선발로 써야 하는지, 불펜요원으로 활용해야 하는지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한 상태다. 내년 시즌 그의 활용도를 확실하게 체크해보기 위해 선발 전환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병현은 불펜투수로 변신한 이후 제구력과 밸런스 등에서 선발 때보다 한결 안정된 모습을 보여줬다. 8월 1일 문학 SK전 이후 50일 만에 다시 선발로 출격하는 20일 롯데전에서 과연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궁금하다.

잠실 | 최용석 기자